

국립해양박물관 제1기 대학생기자단모집

모집분야

① 글(사진 포함) ② 영상

지원자격

전국의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 현재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운영자
-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용 가능한자
- 글쓰기 및 사진, 영상촬영에 능숙한자

※ 현재 타 기관 기자단, 홍보대사, 서포터즈 등 유사활동 중인 분은 지원불가

모집인원

글 5명 / 영상 5명

※ 모집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활동기간

2014년 4월 23일(수) ~ 9월 30일(화)(6개월)

활동내용

[콘텐츠 제작활동]

- 취재기자 : 월 2건 이상 기사 작성 (지정기사, 자율기사)
- 영상기자 : 월 1건 이상 영상 기사 작성 (현장취재, 기획 동영상 등)

※ 기사 작성 후 박물관 공식 블로그에 게재
※ 매월 지정 미션을 모두 수행시 수료증 지급

[SNS 활동]

- 개인 블로그, SNS등 온라인 홍보활동

모집일정

- 서류접수 : 3월 24일(월) ~ 4월 13일(일)
 - 전화면접 : 4월 14일(월) *필요시 면접진행
 - 결과발표 : 4월 17일(목)
 - 발대식 : 4월 22일(화)
 - 해단식 : 10월 중
- ※ 발대식 미참여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
 - ※ 지원시 파일 명: 대학생기자단 지원자_이름.hwp
 - 기획안 1편 제출(의무)
- [글분야]** 기획안 주제(택1)
1. 박물관 전시유물 하나를 선택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소개
2. 박물관 개관 2주년 행사 아이디어
- [영상분야]** 박물관 홍보 영상물 1편(wmv확장자 파일로 3분 이내, 자유 형식) *본인이 제작한 작품 포트폴리오 추가제출 가능
- 지원서1부, 기획안 1부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khn@sciex.co.kr
 - 문의전화 : 070-4628-2507

혜택내역

- 소정의 활동비 지급
- 기자단 공식명함 및 위촉장
- 수료증 발급, 우수기자 포상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배를 밀며

장석남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터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는
온 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장석남 (시인, 대학교수)

198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맨발로 걷기」로 등단,
2012년 제23회 김달진 문학상
2010년 제10회 미당문학상
1999년 제44회 현대문학상 시부문상
시집으로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뺨에 서쪽을 빛낸다」 등이 있다.

바다 가 들려주는 이야기

C O N T E N T S

PART 1 소장품 이야기 03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PART 2 전시생물 이야기 05

수족관 지킴이 <제브라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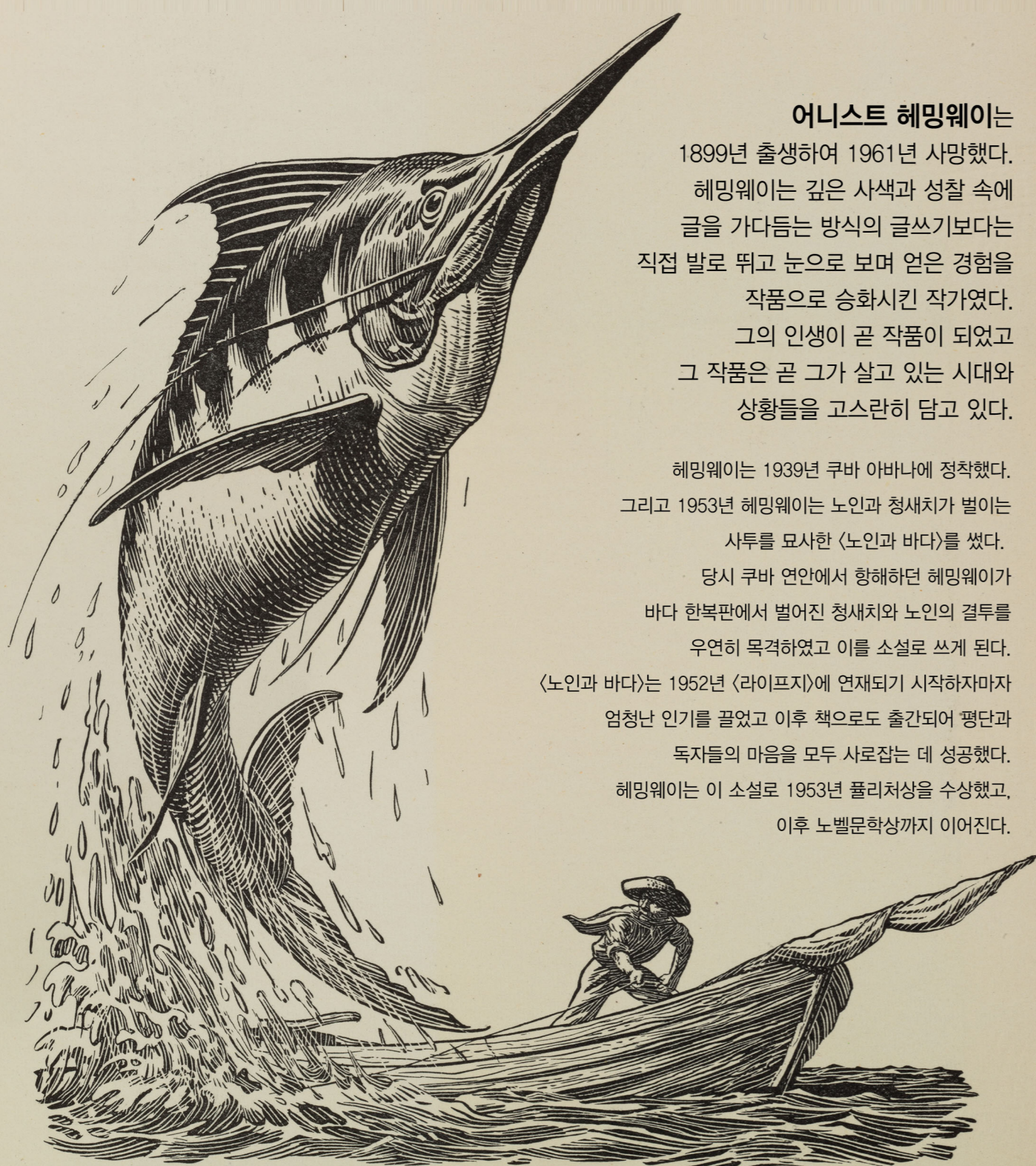
PART 3 박물관 교육행사 07

PART 4 박물관 소식 09

PART 5 사진 후기 10

소장품 이야기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99년 출생하여 1961년 사망했다.
 헤밍웨이는 깊은 사색과 성찰 속에
 글을 가다듬는 방식의 글쓰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며 얻은 경험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작가였다.
 그의 인생이 곧 작품이 되었고
 그 작품은 곧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헤밍웨이는 1939년 쿠바 아바나에 정착했다.
 그리고 1953년 헤밍웨이는 노인과 청새치가 벌이는
 사투를 묘사한 <노인과 바다>를 썼다.
 당시 쿠바 연안에서 항해하던 헤밍웨이가
 바다 한복판에서 벌어진 청새치와 노인의 결투를
 우연히 목격하였고 이를 소설로 쓰게 된다.
 <노인과 바다>는 1952년 <라이프지>에 연재되기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후 책으로도 출간되어 평단과
 독자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헤밍웨이는 이 소설로 1953년 풀리처상을 수상했고,
 이후 노벨문학상까지 이어진다.

<노인과 바다>가 이처럼 명작의 반열에 오른 것은 아마도 노인이 청새치를 잡은 이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때문일 것이다. 대어를 잡아 항구로 향하던 노인은 상어 떼의 습격으로 청새치의 살은 모두 빼앗기고 결국 앙상한 뼈만 남긴 채 돌아온다. 이러한 장면은 아마 헤밍웨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 게 아닐까. 당시 헤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후 긴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때였다. 그는 짧은 승리 이후 긴 패배가 이어지는 것이 인생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작품 속의 노인은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상어에게 맞섰다. 단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어부로서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것은 평생을 보낸 바다 한가운데서, 업으로 삼은 고기잡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저항이었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태도였다. 결국 노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이 어부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남아있다.

그러나 노인은 청새치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다. 상어에 대해 분노도 품지 않았고, 자신의 불운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깊은 잠에 빠진 노인은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꾸다.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거대한 청새치를 잡아 금의환향한 어부처럼, 노인은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 바다에서 다시 승리하리라는 희망을 보여준다.

<노인과 바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해양문학 작품에서 바다는 고난과 두려움의 무대인 반면에 희망과 승리를 안겨주는 대상으로, 상반되는 상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되어왔다. <심청전>에서 심청은 심봉사를 위해 인당수에 빠지는 고난을 겪지만 바다 속 용왕의 도움으로 연꽃에서 환생하여 왕비가 되고 아버지를 찾는다. <모비딕>의 주인공 이스마엘은 '피쿼드호' 를 타고 모비 딕을 찾기 위한 결의에 찬 항해를 시작한다. 그러나 모비 딕과 혈투 끝에 모든 선원은 죽고 이스마엘만 남게 된다. 이처럼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장소로 바다만큼 편리한 요소도 없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오랜 시간 전부터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문학작품이 고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우리 박물관에서 4월 15일부터 4층 테마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언제나 La Mar>전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해양문학작품을 만날 수 있다.



백승주(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전시생물 이야기

해양박물관 수족관 지킴이 제브라상어



국립해양박물관 3층 수족관에 오시면 수 십 마리 골든트레블리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수족관 속을 유영하는 2m 크기의 대형 상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명으로 Zebra Shark 또는 Leopard shark(*Stegostoma fasciatum*) 라고 불리는 이 상어는 어렸을 때 얼룩말 무늬를 뽐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 성체로 성장하면 노란색에 표범 같은 점박이 문양이 있는 모습으로 다시 겉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현재 우리 박물관에 있는 친구는 다 자란 수컷 개체로 앞으로 3.5m까지 자랄 예정입니다.

인도양, 홍해 부근에서 서식하는 이 친구는 다른 상어와는 달리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마음씨 착한 상어친구입니다. 먹이를 주기위해 다이버가 수조안에 입수하면 어느새 다가와 밥을 달라고 애교를 떨곤 합니다.

수족관 지킴이 제브라상어 우리 박물관 처음 온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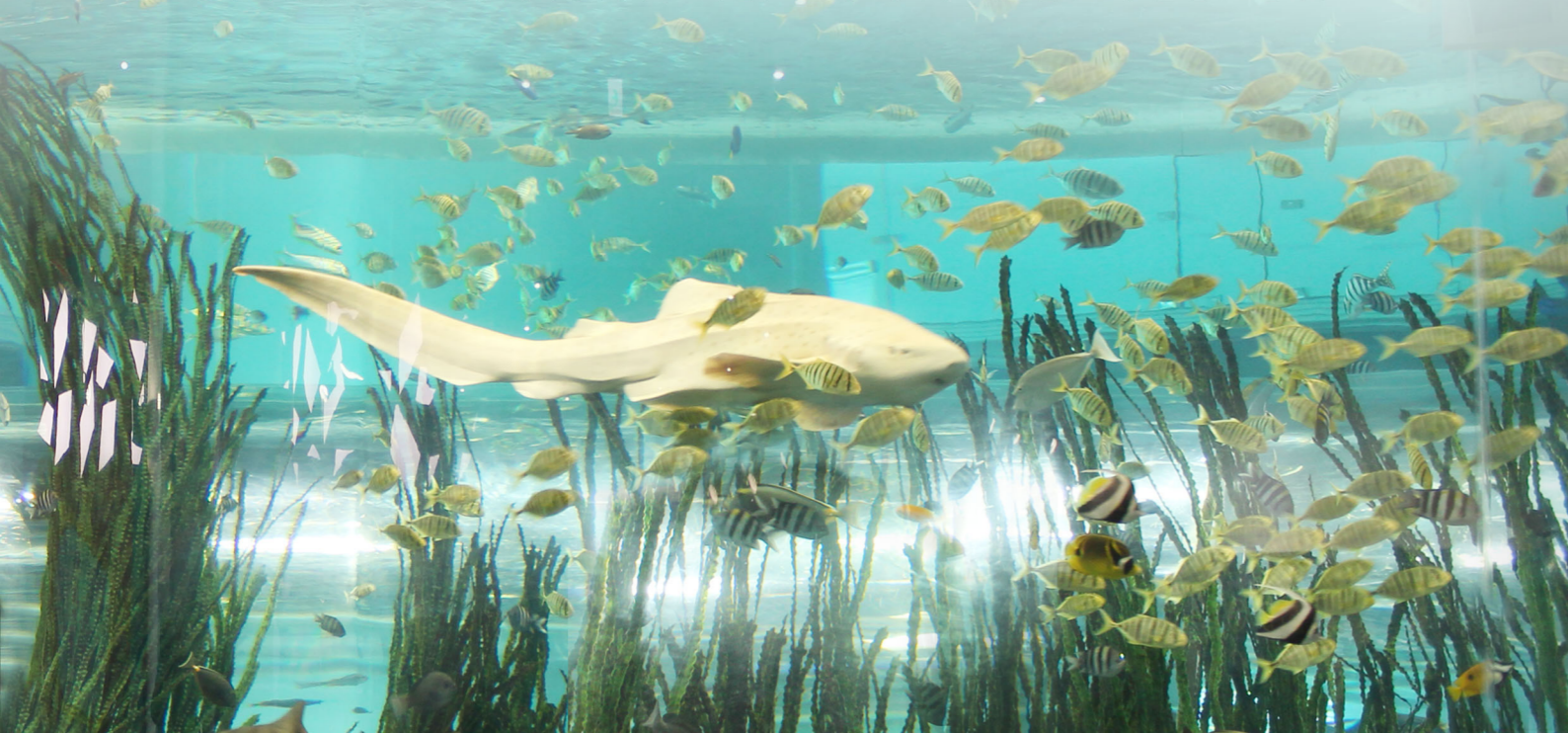
박물관의 제브라 상어는 서울 K 아쿠아리움에서 2012년 국립해양박물관의 개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무진동 차량의 좁은 수조 속에서 8시간을 견디며 힘들게 이동했었습니다. 도착한 후에는 배설물로 더러워진 수조 속 해수를 깨끗한 바닷물로 서서히 교환해주며 부산으로 온 것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처음 1주일간은 밥을 먹지 않아서 아쿠아리스트들의 애간장을 태웠지만 현재는 수족관 지킴이로서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맞이합니다.



아 참! 이 친구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식욕이 왕성한 제브라 상어는 하루에 2번 오전 오후로 나누어 오징어와 커다란 새우를 먹습니다. 먹이를 섭이한 후에는 항상 조용한 곳으로 옮긴 후 휴식을 취합니다. 때때로 수족관에 제브라 상어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풀리셨나요? 제브라 상어는 하루 24시간 중 절반이상을 수족관 바닥에서 쉬고 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1시 40분 피딩시간은 먹보인 이 친구에게는 예외시간이지만요.

오늘도 수족관 한편에서 지킴이로서 많은 물고기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우리 상어 친구에게 한 번쯤 눈인사를 건네주는 것은 어떨까요? 사진도 같이 찍어보시고요.



박물관 교육행사

Happy Weekend

「200년 전 바다를 기록한 자산어보」

4~6월 / 매주 토요일 / 13:00~14:30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프로그램으로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나오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식탁에서 즐겨먹는 물고기 또는 해초들에 대한 우리 가족만의 어보를 북아트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는 체험프로그램



화상통화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의 만남」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1:00~11:30 / 전체 / 20명 / 4층 전시실(극지연구) / 인터넷 및 현장접수 / 무료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남극의 자연 환경과 과학연구 활동에 대해 평소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장차 과학자로서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제2기 해양박물관대학

2014. 4. 15 ▶ 6. 10

매주 화요일 14:00 - 16:00

바닷길을 통한 교류와 소통

- 4. 15 동양 항해술의 역사 / 김주식(한국해양전략연구소)
- 4. 22 역사의 바다 황해 / 권덕영(부산외국어대학교)
- 4. 29 한국 고대의 무역과 상인 / 윤재운(대구대학교)
- 5. 13 신라시대 장보고의 해상활동 / 고경석(해군사관학교)
- 5. 20 유적답사(경주일대)
- 5. 27 해초가 본 인도와 중앙아시아 / 정병삼(숙명여자대학교)
- 6. 03 해양 탐험의 역사 / 김성준(목포해양대학교)
- 6. 10 이국적인 맛을 찾아서, 향신료 루트 / 정한진(창원문성대학)

대상 성인 300명
 장소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
 참가비 무료 (단, 답사비용은 참가자 실비부담)
 모집방법 인터넷 예약접수(www.nmm.go.kr), 전화 및 현장접수
 문의 070-4628-2502,6 (학예 · 교육팀)

※ 강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준강좌 이상 이수 시 해양박물관대학 수료증을 드립니다.

박물관 소식



국립해양박물관 '제1기 대학생 기자단' 모집 2014.3.24.~4.13

해양 관련 주요 이슈를 전파하고 소통할 「제1기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기자단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박물관 행사 및 해양관련 소식을 젊은 층의 감성에 맞는 참신한 시각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해양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새 단장 2014.3.29

해양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 이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자료실만의 독립된 공간과 따뜻한 바닥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독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박물관 방문 2014.3.28

3월 28일, 국립해양박물관 설인철 관장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 안 모로 과학기술 및 대학협력담당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해양문화교류를 위한 상호교차 전시 등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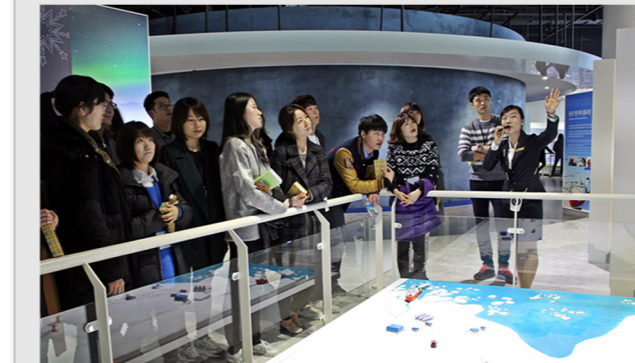


가족영화 무료상영 '해양가족극장' 2014년 4월

매주 토요일 3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무료상영 합니다. 상영일정 참고하셔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스폰지밥 네모바지 1st Season 1~4편)

포토 후기

박물관을 찾은 특별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3월5일, 해양수산부 새내기 공무원 방문



3월7일,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 방문



3월20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방문



3월28일, 주한프랑스대사관 과학담당관 방문

